

‘전주시민 자전거 행진’ 28일 전개

자전거의 날(4월 22일) 기념... 공영자전거 체험단 운영·산악자전거 다운힐 시연 등

자전거의 날(4월 22일)을 기념해 전주시민들이 생태교통수단인 자전거를 타고 행진을 펼친다.

전주시는 ‘자전거 날’과 ‘자전거 주간’을 맞아 자전거에 대한 인식 확산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오는 28일 ‘전주시민 자전거 행진’을 전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자전거 행진에 참여한 시민들은 오전 10시 시청광장을 출발해 공구거리와 전주천 자전거길, 삼천 자전거길을 지나 완산체련공원에서 잠시 휴식을 갖고, 삼천동 용흥초 앞 삼천 둔치에 도착하는 약 20km코스를 함께

달린다.

특히, 이번 자전거행진에 참가한 시민들은 봄철을 맞아 전주천과 삼천의 물길을 따라 풍경을 즐기며, 만개한 다양한 꽃들도 만날 수 있다.

또한, 이번 행진에서는 공영자전거 시민 체험단 50명도 모집해 공영자전거를 타고 행진에 참여하게 된다. 또, 완산체련공원에서 휴식시간에는 산악자전거 연습장에서 전문동호인들의 산악자전거(MTB) 다운힐 시연 등 다양한 볼거리도 제공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자전거행진에 참여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덕진지역자활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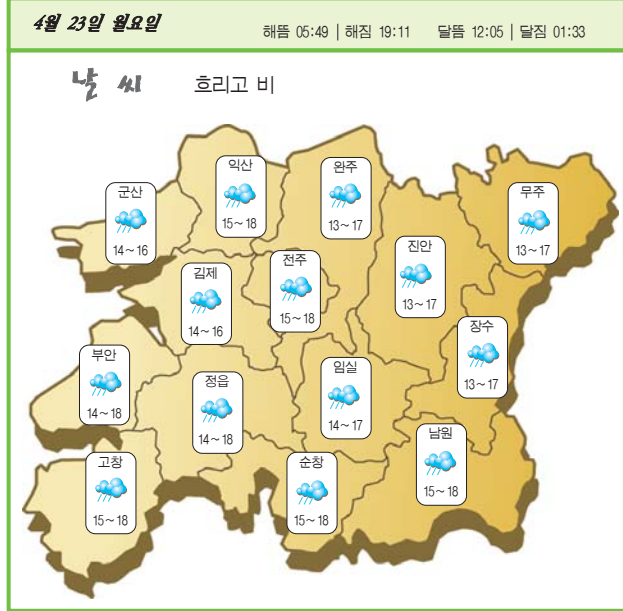
터의 두바퀴 행복사업단에서 자전거 점검 및 정비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 수리센터도 운영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전주시 홈페이지(www.jonju.go.kr) 또는 ‘전주시 민자전거행진’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맷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전주시 자전거정책과(063-281-2562)로 전화 또는 당일 현장 신청도 가능하다. 단, 공영자전거 체험 신청의 경우, 전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 50명에 한해 신청 받고 있으며, 공영자전거 행진 참가자는 행진 당일 자전거의 대여·반납을 위해 휴대폰을 지참해야

한다.

전주시 시민교통본부 관계자는 “이번 행진은 자전거의 날 주간에 맞아 친환경 생태교통수단인 자전거 타기를 생활화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시민 한마음 행진으로 자전거를 사랑하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며 “자전거 행진에 참여하는 시민은 안전을 위해 헬멧을 꼭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4월 자전거행진에 이어 오는 6월과 9월, 10월, 11월에도 시민 자전거 행진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전주대 '장학금 수기 공모' 내달 23일까지 접수

전주대학교는 23일부터 5월 23일까지 제1회 장학금 수기 공모전을 접수한다.

“기회를 만나다, 미래를 말한다.”는 주제로 처음 시행되는 공모전은 장학금 수혜를 통한 변화와 성공사례 그리고 그 감동 스토리를 발굴해 장학금 기부문화를 확산하려는 취지로 진행된다.

이번 공모전은 졸업생을 포함해 전주대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았던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전주대는 2017년, 443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며 사실상 반값 등록금을 실현했다. 그 결과 대학자랑에서는 장학금 수혜 호남 1위, ‘좋은 대학’으로 선정된 바 있다.

전주대는 자체적으로 후원의 집 운영, 장학금 모금 프로그램을 기획해 장학금 기부 문화를 확산하고, 재학생들의 장학금 수혜 혜택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공모전을 기획한 대외협력홍보실 김삼기 실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서 장학금 수혜 학생들의 감동스토리를 발굴하고, 재학생의 장학금 수혜 기회를 더욱 늘려 학생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말하며 성과를 기대했다.

공모전 제출 양식은 수필형태 자유 양식, 분량은 2,000자 내외, 접수는 전주대 대외협력홍보실 방문 또는 hongbo@jj.ac.kr로 메일 발송할 수 있다. /이상민 기자



전북대학교 화학공학부가 '2017 산업계관점 대학평가' 정유석유화학 분야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은 전북대학교 화학공학부의 2017년 YNOC 현장견학

전북대 화학공학부, 산업계관점 대학평가 '최우수'

정유석유화학 분야에서... 산업계 요구 교육과정 설계·운영, 성과 호평

전북대학교 화학공학부가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실시한 '2017 산업계관점 대학평가' 정유석유화학 분야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이 분야 평가가 있었던 2013년에 이어 2회 연속이다.

이번 평가는 교육부와 대교협이 소프트웨어와 전자반도체, 정보통신, 정유석유화학, 화장품 등 5개 분야에서 전국 75개 대학 160개 학과를 대상으로 산업계 기반 교육과정 설계(30%)와 교육과정 운영(50%), 교육과정 운영 성과(20%) 등을 평가한 것이다.

평가는 카카오와 LG전자, COSON 등 39개 기업의 임·직원과 대학 전문가, 2,027개 기업이 설문조사 참여로 이뤄졌다.

최우수 평가를 받은 전북대 화학공학부는 산업계 요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나노화학공학과 생명화학공학, 에너지화학공학 등 세부 전공별로 특화된 교육과정을 통해 산업계 맞춤형 화학공학 엔지니어를 배출하고 있다.

특히 기업 현장 견학을 비롯해 CEO 및 전문가 초청 특강, 토크 콘서트, 전공 맞춤형 취업캠프, 화공기사 자격증반 운영, 취업동아리 운영, 교수-학생 간 토크쇼 등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실무역량과 전공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최근에는 산업계 의견을 반영해 실험 교과과정에서 안전 및 데이터 분석 교육을 강화하고 이를 평가 항목으로 반영한 것을 비롯해 정유석유화학 산업의 현장 적응 및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통합형 주제로 실험교육내용을 개편했다.

이 밖에도 산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산학자문위원회 구성, 최근에는 산업계 전문가들을 겸임 교수로 초빙해 정기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4학년생을 대상으로 화학공학 연구 및 산업계 동향에 대한 전문가 특강도 개최하고 있다.

전북대, 세계 알레르기 주간 캠페인 행사

23~27일... 무료 알레르기·폐기능 검사, 점심시간 특강

2018 세계 알레르기 주간을 맞아 전북대학교에서 알레르기 질환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얻고 무료검사가 가능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전북대 산학협력단과 전북대 NCER 호흡기질환 T2B 기반구축센터, 대한 천식및알레르기학회 전북지회는 23일부터 27일까지 중앙도서관 로비에서 세계 알레르기 주간 캠페인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올해의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많은 정보를 보다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게 알레르기 질환인 ‘두드러기’를 포함한 다양한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위한 무료 알레르기 및 폐기능 검사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진행된다.

또한 점심시간을 이용해 진수당에서 매일 전문의가 참여하는 아토피 피부염과 알레르기, 천식 및 비염, 두드러기, 식품 및 약물 알레르기에 대한 특강도 진행된다.

북한이탈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담당교원 연수

전라북도교육청은 북한이탈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담당(담임)교사 50여명을 대상으로 20일 2018년 북한이탈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담당교원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북한이탈학생을 우리 사회의 통합된 일원으로 적응시키고 통일시대 미래인재 성장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담당교사와의 1대1 멘토링을 통해 △학습지도 △심리상담 △진로·직업지도 △문화체험 활동 등 학생 개인별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반영했다.

특히 올해 연수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로부터 직접 듣는 북한이탈학생 교육에 대한 이해와 김서영(목포부추초), 김경성(공주여고) 교사의 맞춤형 멘토링 지도 사례를 공유하여 담당교원들의 전문성 제고에 중점을 뒀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미래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지금, 북한이탈학생도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인식이 우선 필요하다”며 “도교육청에서는 학생·학부모·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북한이탈학생이 우리 사회에 온전히 적응하고 성장·자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독·광고문의 288-9700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